

“교회 신도 엘리베이터 탔나...아파트 10층까지 계단 이용”

르포·코로나 무더기 확진 광주 북구 각화동·두암동 가보니

성림침례교회 인근 한산...가게는 '개점휴업' 확진자 동선·접촉자 파악 늦어져 불안감 가중

27일 찾아가 보니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와 두암동 동광주타워 인근은 지나다니는 시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일대 상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손님을 기다리기는 커녕, "불안해서 가게 밖으로 나가기도 두렵다"는 업주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까지 북구 성림침례교회에서는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광주 타워구입에서는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이들 확진자에 대한 검체 채취가 늦게 이뤄지면서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이미 다른 사람과 만났을 지도 모르는데 동선도, 접촉자 파악도 진행중이라고만 하니 불안하지 않겠나"는 것이었다. 광주시의 방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만큼 이들과 밀접 접촉했던 시민들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지만 확진자 동선 파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자 동선 파악은 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다녀간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7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가 폐쇄 조치돼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성림침례교회 옆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6년째 운영중인 안미숙(여·50)씨는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몇 달전부터 교회측에 예배 자제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진행했다"면서 "교회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회와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을 만나기 쉽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이혜숙(여·60)씨는 "교회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평소 같으면 교회를 지나치면 되는데, 불안해서 먼 길을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아파트 주민 중 누가 교회 신도인지 몰라 10층

집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맞은편에 줄지어 있는 식료품·축산 도매상도 한적했다. 교회 맞은편에서 30년간 식료품 도매상을 해온 김경호(67)씨는 "평소에는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가려는 소매업자들로 주변 도로가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확진자가 쏟아진 지금은 아예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인근에서 '저렴도매상'을 운영하는 최승규(60)씨도 "오전 중 딱 한가계만 물건을 떼갔다"면서 "한 그레도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인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앞으로는 손님이 아예 찾지 않을 것 같아 망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두암동 동광주타워구입 인근도 비수했다. 6층 타워구입을 가리키며 확진자 발생 이야기를 나누던 시민들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길 건너에 있는 우산 근린공원에도 평소 같으면 바둑과 장기에 열중하고 있을 노인들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타워구입 옆에서 옷가게를 하는 최혜경(여·60)씨는 "불안해서 가게 밖으로 나가기도 못하고 있다"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남은 박스를 버리러 나올 때도 마스크 없이는 안 나온다"고 했다.

타워구입 건물 옆 1층에 있는 두암동 우체국 관계자도 "우체국을 찾는 대부분은 노인분들인데 옆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타워구입 앞에서 만난 김민영(42)씨는 "확진자 동선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는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곳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또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 채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 대통령 "특정 교회, 방역 방해"

개신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이라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나 기도도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두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회의 고등 감수 및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은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교회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는 방역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으니 (비대면 예배가 적용되는) 교회를 구분에 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교회 인종제를 도입하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점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믿음은 꼭 좀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공동대표 회장이 제안한 '정부와 교회의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기독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틀간 31명 확진' 성림침례교회에 무슨 일이...

광화문 참석 '광주 284번' 세차레 예배 검사 미루고 동선 숨겨 집단 감염 유발

광주 성림침례교회에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 교회 등록 교인은 모두 1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예배 참가 등 교회 활동을 하는 인원은 670여명 수준이며, 이들에 대한 전수 검사는 끝난 상태다. 이어 27일에는 확진자 31명의 가족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으며, 음성 반응자라도 그 가족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교인 가운데 최초 양성판

정자인 광주 284번 확진자 A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16일 두차례 주일 예배와 19일 수요 예배 등에 참석했으며, 역학 조사 초기 이동 동선을 숨기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교회 내 CCTV가 최근 폭우로 잠겨지면서 작동하지 않아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조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A씨의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에서 진단 검사까지 9일간 공백도 집단 감염에 불을 붙였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1일 북구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았으

면서도 24일에야 조선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로 인해 A씨로 감염된 확진자들이 다른 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성림침례교회는 600~700명의 교인이 다니는 데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여m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해당 어린이집도 검체채취가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확진자 31명 중 27명이 성가대 활동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집단으로 식사를 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이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교회측은 A씨처럼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석할 경우는 있었을 지 몰라도 교회 차원에서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기독교교단협 "참담하고 부끄럽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이상복)는 27일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두려움과 혐오의 시선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사과했다.

교단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는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광주 몇몇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회에 다녀온 확진자들의 검체 검사 거부와 역학 조사 방해로 검사를 수 없이 번지는 추세"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 교회는 근대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섬기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대교구장 김희중)는 27일 광주 시내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을 각각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가 미사 중단에 나서면서 전국 16개 천주교 교구 중 본당·기관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 미사 중단 조치를 한 교구는 4곳으로 늘었다.

광주대교구는 이날 본당과 기관,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지역 본당과 기관 미사와 모임을 중단한다"며 "다만 전남지역은 지자체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존 지침을 준용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도 27일 시의 코로나19 '3단계에 준하는 모든 범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사찰의 거두법회는 신도들이 참여할 수 없고 또한 소인원 등도 일일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함께 불교공동체 유지를 위해 각자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빵 매 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아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신입단지4차선 도로접,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광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총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남구 대촌 화장동 답1240㎡ 1억1천만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재)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신주발행 및 제3차 배정 공고

당사는 2020년 8월 27일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함.

- 1) 발행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88,405주(1주당 액면가액 금 5,000원)
-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17,250원
- 3) 주금납입일 : 2020년 9월 14일
- 4) 총발행가액 : 금 6,699,986,250원
- 5) 신주인수방법 :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거 제3차 배정에 의하여 인수함
- 6) 주금납입방법 : 신주납입대금은 부채(차입금)의 출자 전환액과 상계처리함.
- 7) 제3차 배정 내역

주주명	주소	신주배정 주식의 종류와 수
해원에스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7번로 39(오산동)	보통주식 388,405주

8) 신주인수권 :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함.

9)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0년 8월 28일
 해원에스티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3길 12
 대표이사 황호

분할합병에 관한 공고

주식회사 태하이엔씨(“갑”)과 대상전기 주식회사(“을”)는 2020년 08월 27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함.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출자제외 이외의 재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표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28일

양도인 “갑”
 상 호 : 주식회사 태하이엔씨
 대표이사 이 경 미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백련정길 127

양수인 “을”
 상 호 : 대상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 미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길 61-1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예성전기(이하 “갑”)와 리치록스(RICHILUX CO., Ltd.)(이하 “을”)는 2020년 08월 27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및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8월 28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예성전기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생방로 23
 대표이사 임 환 성

“을” 상 호 : 주식회사 리치록스(RICHILUX CO., Ltd.)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57-42(3호)
 대표이사 박 용 신

회사합병공고

유한회사 에너지팩(갑)과 유한회사 거레에너지(을)는 2020년 8월 27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이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28일

“갑” 유한회사 에너지팩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내리 587-2
 이사 공 무 역

“을” 유한회사 거레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구양로45번길 14-4(두암동)
 이사 김형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상운이엔씨(이하 “갑”)와 주식회사 세인에너지(이하 “을”)는(은) 2020년 08월 27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금은 재산 이외의 재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갑”의 해당 주주계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28일

“갑” 주식회사 상운이엔씨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57
 대표이사 이 성 희

“을” 주식회사 세인에너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57
 대표이사 이 옥 희

산행안내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월성계곡 서충동류 물길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5일(토)

▲광주호산회 9월5일(토) 대원사 계곡 피서산행 대원사 둘레길,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금당산악회 9월5일(토) 충북 도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성 롯데마트앞 06:10, 진원동식자재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9월12일(토)

▲광주호산회 9월12일(토) 합천 남산 제1봉 해안사 소리길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 08월 26일 주식회사 일강전력(“갑”)과 유한회사(“을”)는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이에서 결정하는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갑”의 재산(영업) 일부(전기공사업부문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분할대상 등록번호 : 전기공사업 광주 - 00819 호
 2020년 08월 28일

“갑” 주식회사 일강전력 (200111-0382930)
 광주광역시 서구 풍곡로37번길 8(영암동)
 대표이사 오 문 근

“을” 유한회사(171411-0026108)
 경상남도 상주시 경성대로 2560-92, 5층(가장동)
 대표이사 박 승 진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 08월 27일 개최된 하기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리치록스(RICHILUX CO., Ltd.)(갑)은 주식회사 예스티리아이팅(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 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 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8월 28일

(갑) 주식회사 리치록스(RICHILUX CO.,Ltd.)
 광주광역시 북구 청담벤처로28번길 7(가천동)
 대표이사 이 옥 범

(을) 주식회사 예스티리아이팅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단9길 9-21, 3층(변곡동)
 사내이사 이 옥 범

회사합병공고

유한회사 진도그린에너지(갑)와 유한회사 대찬솔라(을)는 2020년 8월 27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이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28일

“갑” 유한회사 진도그린에너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9-2
 이사 오형석

“을” 유한회사 대찬솔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우당리 1226
 이사 공무역

회사합병공고

유한회사 클린에너지(갑)와 유한회사 꽃가람에너지(을)는 2020년 8월 27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등에 이의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28일

“갑” 유한회사 클린에너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촌리 741
 이사 김형권

“을” 유한회사 꽃가람에너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014-12
 이사 오형석

분실공고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계약서 : 전남 순천시 삼산초동길20 신매곡 서원아파트 108동203호.
 ·계약자 : 심 수 애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8월 28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